



저 청청한 하늘

시적화자의 여건과 대조되는 (자연)의 이미지→푸름.

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

시적화자의 여건과 대조되는 대상(자연)의 이미지→흰색.

왜 날 울리나

자유롭지 못한 화자 자신에 대한 슬픔의 탄식

날으는 새여

시적 허용, 시적화자의 여건과 대조되는 대상(자연)의 속성→자유로움

뫼인 이 가슴

--> 화자의 구속된 처지 강조

화자가 놓인 상황 추리→속박, 억압당한 상황.

⇒ 자유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억압당한 화자의 모습

밤새워 물어뜯어도

자유에 대한 갈망 행위.

닿지 않는 밀바다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

아무리 갈망해도 얻을 수 없는 '자유'에 대한 그리움

피만이 흐르네

자유를 갈망하는 열정만 가득함.

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--> 암울한 상황에서의 화자의 고통

자유를 얻는데 기여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갈망.

⇒ 자유에 대한 그리움과 화자의 무기력함

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

화자 새. 의인법

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

기어이

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

아직까지 자유로운 것에 대해 동경할 수 있는 눈, 새와 함께 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기 때문에

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

속박당한 화자의 신체. 시각적 이미지 ↔ 청청한 하늘, 푸른 산, 흰 구름과 대조.

함께 답새라

①(새와 함께) 하고 싶구나. ②(새처럼 함께) 자유로워지고 싶구나. ③(함께) 두들겨 없애버리고 싶구나.(참고: 북한말)

→③의 해석 : 눈을 없애버리고 싶은 이유는 자유로운 새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인해 더욱 고통스럽기 때문일 것이다.

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

끝없이 이어지는, 억압과 속박을 상징하는 쇠사슬소리(고통을 야기하는 소리)

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

죽어서라도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가 쉽지 않음에 대한 탄식

⇒ 억압적 현실 상황에 대한 절망



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

낮임에도 불구하고 희미해져가는 의식 상태, 역설법

넋 속의 저 짧은

여위어가는 저 짧은 ^{화자}별발을 스쳐

의식이 희미해짐에 따라 햇빛 또한 눈에 가물가물해 지는 모습.

떠나가는 새

화자의 의식 속에서(시아 속에서) 멀어져가는 새의 모습, 자유가 멀어져 감.

⇒ 화자의 의식 속에서 멀어져가는 새의 모습

청청한 하늘 끝

화자가 꿈꾸는 자유로운 세상①

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

화자가 꿈꾸는 자유로운 세상②

왜 날 울리나

새와 달리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울먹임, 처절한 절망의 울먹임, 자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

덧없는 가없는 저 구름

자유로운 구름의 모습

아아 묶인 이 가슴

속박당한 화자의 모습. ↔‘구름’, ‘새’와 대조. -->수미상관

⇒ 멀리 떠나가는 새를 보면 절망하는 화자의 모습

갈래 : 자유시, 서정시, 참여시

성격 : 영탄적

제재 : 새

주제 : 억압적 현실에의 절망과 자유에의 갈망

특징

① 1연과 5연의 수미상관적 구성.

② 선명한 이미지의 대조를 통한 주제 강조. [푸름(자유, 생명) ↔ 붉음(억압, 고통, 죽음)]

해설

이 작품은 김지하 시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었을 때 쓴 시다. 이 시에서는 살이 푹푹 썩어가는 더운 여름날, 감옥 창살 밖 푸르른 하늘 흰 구름 사이로 날아가는 새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시인이 느껴야 했던 육체적 피로움과 암울한 심리가 가슴 아프게 잘 드러나고 있다. 먼저 1연에서 화자는 청청한 하늘, 하얀 구름,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산맥 너머로 날아가는 새를 발견한다. 그리곤 억압당한 화자 자신의 모습과 달리 너무나 자유로이 날아가는 새에게 ‘왜 날 울리나’며 절규한다. 2연에서 화자는 낮에 본 새의 자유로움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밤을 새워 자유로움을 꿈꾸어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인식한다. 단지 화자는 자유로움을 갈망하는 자신의 뜨거운 피만 느낄 수 있을 뿐이다. 3연에서 화자는 눈물 젖은 눈으로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(새와 함께 하고 싶은 / 새처럼 자유롭고 싶은 / 시벨건 몸뚱아리와 함께 눈을 없애 버리고 싶은) 마음이다. 하지만 고통의 쇠사슬소리만 들으며 자유로운 새가 될 날은 너무나 멀고 아득한 현실 앞에 절규한다. 4연에서 화자는 햇빛을 받으며 아스라이 사라져 가는 새를 눈물어린 눈으로 희미하게 쳐다만 볼 뿐이다. 5연에서 화자는 자유로이 날아가는 새를 보며 ‘아아 묶인 이 가슴’이라는 절망적 탄식으로 시를 끝내고 있다. 이 부분은 1연의 변형적 반복(수미상관)으로 억압된 상황 아래에서 시적화자가 겪는 고통과 절망을 독자에게 강렬하게 각인시키고 있다.